



협회-한국노총 인천본부, 산재예방 위해 손잡아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신진규)가 지난 2월 8일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의장 박병만)와 산재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지역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향후 양 기관은 인천지역 사업장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협회 신진규 회장은 “협회의 전문성이 보다 많은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총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라며 “협회는 설립 취지에 맞게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사업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 기관의 이번 협약으로 인천지역 사업장에 좀 더 많은 안전보건 서비스가 이뤄지게 되면서, 재해 감소 성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지역 안전관계자 모여 산재예방 결의



안산지역 산업안전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 사업장의 무재해를 기원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송병춘)과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산지회(지회장 김석진)는 최근 '2012년 안산지역 산재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안산 수암산 수암봉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안산지청 산재예방과 서광호 반장 등 고용부 관계자를 비롯해 협회 임직원, 관내 사업장 안전관계자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석진 지회장은 “지역 안전관계자 간 친목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인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결집된 안전인의 힘으로 안산지역에 굳건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경기남부지회, 안전기원제 및 결의대회 개최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남부지회(지회장 윤경채)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정언기) 관계자와 관내 안전보건관계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성산 정상(경기도 안성시 소재)에서 안전기원제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와 고용노동부 간의 정보교류를 강화하기 위한다는 취지도 있었다. 경기남부지회의 한 관계자는 “안전을 기원하는 것과 동시에 관내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라며 “이날 행사가 안전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산재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협회, 한노총 부산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역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신진규)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의장 이해수)가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2월 10일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에서 신진규 협회장과 이해수 의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진규 협회장은 "협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안전분야 최고의 전문기관"이라며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해나간다면 지역 모든 사업장에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수 의장은 "안전보건은 산업현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전제하며 "이번 협약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부천지역, 노사화합과 산재감소를 위한 기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과 안전유관기관, 노사기관 등의 관계자들이 1월 28일 태백산 천제단 정상에 모여 부천지역의 노사화합과 산업재해 감소를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서부지회 부천사무소(지회장 박용석, 출장소장 송남근), 안전보건공단 부천지지원(원장 경창수) 등의 안전기관 관계자들과 부천상공회의소, 부천테크노파크입주협의회, 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 등의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2012년 한 해 동안 관내 사업장의 산재감소를 위해 노사민정이 적극 협력해나가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의 한 관계자는 "2012년 부천지역 모든 사업장에 안전하고 활기찬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사민정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협회의 전문성, 충북지역 산업현장에 확산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신진규)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의장 한기수)는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양 기관이 협력을 합의한 사항은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원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공동 실시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산업안전에 관한 사업 분야의 발굴 등이다. 이 협약으로 충북지역의 산재감소를 위한 안전활동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양 기관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실무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 신진규 회장은 "노총과의 협력에 따라 협회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산업현장에 더욱 확산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협약이 충북지역 사업장들의 안전보건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한기수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답했다.